갓, 감자보다 더 올랐다

29개 채소류 4월보다 3% 가량 가격 낮아져

한파영향 벗어났으나 전년동기比 평균 26%↑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이 한풀 꺾였다는 조사가 나왔다. 다만 갓, 건고추, 시금치 등 일부 채소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50% 이상 가격이 오른 상태다.

9일 티몬에 따르면 채소류 가운데 1년 전과 비교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상품은 갓(1kg, 2091원)으로 85%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고추(양건, 600g, 2만747원)가 지난해 같은 시간보다 83% 가격이 올라 뒤를 이었다. 시금치(1kg, 5203원)는 58%, 고춧가루(국산 1kg, 3만1465원) 56%, 무(월동 1개, 3011원) 50% 가격이 뛰었다.

다만 배추와 양배추 시금치, 상추 등 29개 품목의 가격은 점차 안정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의 부류별가격동향(소매)에서 채소류 29개 품목은 1개월 전과 비교해 평균 3%가량 가격이 낮아졌다. 조금씩 냉해와 한파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높은 상태다. 29개 채소류 가격은 1년전에 비해 평균 26% 상승한 상태다.

이들 품목 중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린 상품은 당근, 풋고추, 양파, 대파, 미나리, 깐마늘 등으로 6개에 불과했다. 가격이 내린 6개 상품을 제외한 23개 채소류의 평균 인상률은 33%로 더 커진다.

뉴시스

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의견 듣는다

오늘 공청회 개최…여론조사 결과 숫자추가방식 선호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번호판에서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거나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방식 중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의 62.1%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의견수렴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지난 3월 11~25일까지 총 3만61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프라인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4~17일 18세에서 69세까지 600명(유효표본)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경찰청을 비롯해 17개 시?도 중 의견을 제출한 6개 지역(경기, 광주, 전남, 충남, 부산, 제주)이 모두 숫자 추가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받침을 추가하는 방식은 온라인 응답자의 21.9%, 오프라인 응답자의 37.9%만 선호했다.

디자인과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국가상징문양 및 '한국형 FE 서체' 도입 등)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서체는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해 국가상징문양?홀로그램 등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 번호 확보용량 및 카메라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했다.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이후 추가 선호도조사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 김영찬 교수 주재로 경찰청, 교통·공공디자인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지자체,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자동차 운행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한다.

광주신세계, 일찍 찾아온 여름 '서머 패션 페스티벌'

여름 준비 얼리버드 고객 증가…내일부터 27일까지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머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 성큼 다가온 여름에 대비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소개한다.

5월은 따스한 햇살과 청명한 하늘, 그리고 화사한 꽃과 푸른 수목으로 온 천지가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최근 더위가 점점 빨리 찾아오면서 '여름의 시작'이라는 이미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봄이 언제 왔었냐는 듯 스쳐 지나가고 더위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일찍 여름을 준비하는 얼리버드(Early Bird)고객이 증가했다.

이에 광주신세계는 평년보다 1~2주가량 빨리 시원한 원피스나 반팔 티셔츠, 샌들이나 슬리퍼와 같은 여름상품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5월 첫 1주일간(5/1~5/7) 여름상품의 매출은 지난해 동 기간에 비해 15% 가량 신장했다.

날로 더워지는 날씨, 여름 상품 문의전화 증가, 그리고 여름상품 매출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광주신세계는 여름 테마행사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지난해(5/18 시작)보다 일주일 빠른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여름 상품을 종합적으로 제안하는 '서머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특집 행사를 통해 티셔츠, 원피스부터 여름용 재킷,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름철 패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영업기획 박인철 팀장은 "날로 더워지는 날씨 속에 여름 상품을 사고자 하는 고객들의 백화점 방문이 증가하면서 예년보다 1주일 빨리 '서머 패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더워지는 날씨, 상품 판매량과 매출 데이터를 꾸준히 분석하고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빠르게 선보이며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LH, 전세임대주택 2100호 공급

대학생 · 취업준비생 등 임대 3순위자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전세임대 3순위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100호를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며, 올해 공급물량은 7000호다.

지원가능 자금(전용면적 60㎡이하 주택 기준)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8000만원 기준 19만5000원이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4인 기준 584만6903원)인 대학생·취업준비생 으로,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면 임대 3순위에 해당된다.

입주 희망자는 전세임대주택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14~18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조리기기 대세는 '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比 4배 많아…안전 · 디자인 · 관리 등 선택 늘어

전기레인지가 빠른 속도로 가스레인지를 대체하며 대표 조리기기로 자리잡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국내시장에서 일반 고객(기업 간 거래(B2B) 제외)에게 판매한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가운데 전기레인지 비중이 처음으로 80%에 육박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고객이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를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분기 15%에서 지난해 1분기 50%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업계에선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이 지난해 60만대 규모에서 올해 많게는 80만대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의 높은 성장에 힘입어 LG 디오스 전기레인지의 1분기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전기레인지는 가스레인지와 달리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가스 누출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낮다. 가스레인지에 비해 설치와 관리도 간편하고 최근 출시된 제품들은 단점으로 여겨지던 화력도 좋아졌다. 매끈하고 넓은 상판 디자인으로 깔끔한 주방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찾는다고 LG전자는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강력한 화력, 안전 기능, 차별화된 편의기능, 세련된 디자인 등을 고루 갖춘 전기레인지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며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